

‘팀광주’ 국회의원들, 광주 핵심현안 지원 나선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2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광주의 날’ 개막식에서 양부남·정진욱·안도걸·조인철·정준호·전진숙·박균택·민형배 광주지역 국회의원,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등과 광주만세를 외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시, 타 지역 연고 여야 6명 위촉 군공항 이전·탄소중립 협력 요청 강 시장 “국방·환노위 도움 절실” 의원들 “광주발전 위해 뛰겠다”

전국 최초로 국회 내 ‘지방자치단체의 날’을 제정한 광주시가 타 지역 연고 국회의원을 명예광주시민으로 위촉하고 ‘팀광주’라고 명명했다.

이들은 광주의 주요 현안과 관련해 광주에 도움을 줄 예정이어서 큰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광주시는 2일 개막한 ‘국회, 광주의 날’에서 전방위 국회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팀광주 국회의원 및 명예시민 위촉식’을 열고 위촉패와 광주명예시민증을

전달했다. 이들은 제22대 국회 국방위원회 성일중(국민의힘)·안규백·김민석, 환노위 이학영·김주영(이상 더불어민주당)·김소희(국민의힘) 의원 등 총 6명이다.

이날 위촉식에는 강기정 시장과 팀광주 의원으로 위촉된 이학영·김주영·김소희 국회의원,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강 시장은 이날 위촉식에 참석하지 못한 안규백·김민석·성일중 국회의원을 직접 찾아 ‘팀광주 의원’ 위촉패를 전달할 예정이다.

‘팀광주 국회의원’은 광주 지역구 국회의원에 배치되지 않은 국방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로 구성됐다. 이들 의원의 위촉은 민·군 통합공항 이전, 대한민국 제1호 노사상생형 일자리모델

인 ‘광주형일자리’ 고도화, 정부 계획보다 5년 빠른 2045탄소중립 이행 등 현안 추진을 위해서는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절실한 데 따른 것이다. 광주시는 전방위 국회 협력을 이끌기 위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역 연고와 의정활동 방향 등을 고려해 위촉했다.

민선 8기 들어 지난해 3월 광주명예시민증을 받은 성일중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장으로 광주 민·군 통합공항 이전에 큰 힘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의원은 광주서석고를 졸업하고, 지난해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공동 발의해 동서화합과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을 마련하는 데 큰 힘이 됐다.

국방위원회 김민석 의원은 제21대 국



강기정 광주시장이 2일 ‘광주의 날’ 개막식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아외 캐스퍼 전기차(EV) 전시장에서 캐스퍼 차를 살펴보고 있다. **광주시 제공**

회의원 당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으로서 광주군공항특별법 통과에 큰 역할을 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은 전남대학교를 다니며 민주화운동에 헌신하는 등 광주에 대한 애정이 깊다. 특히 국회 부의장으로서 이번 ‘국회, 광주의 날’이 열릴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줬다.

환노위 김주영 의원은 제26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역임, 광주형일자리 사회적 합의에 크게 기여했다. 환노위 김소희 의원은 기후 정책 관련 전문가로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2045탄소중립 도시 광주’ 실현에 힘써줄 것으로 기대된다.

강 시장과 신 시의장은 지난해 광주명

예시민이 된 성일중 의원을 제외한 팀광주 국회의원 5명에게 광주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강 시장은 “의정활동으로 바쁜 상황에서도 광주를 위해 ‘팀광주 의원’이 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광주발전을 위해서는 국회 국방위와 환노위의 도움이 절실하다. 광주에 대한 애정이 깊고 광주와 의정방향이 잘 맞는 분들을 모신 만큼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광주시민의 사랑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팀광주 의원들은 “팀광주 의원으로 위촉된 만큼 광주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며 “광주명예시민으로서 광주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민주, 곡성군수 재선거 “100% 국민경선”

영광, 선거인단 50%·권리당원 50% 문 전 대통령 수사, 당 차원에서 대응

더불어민주당은 2일 곡성군수 재선거와 관련해 경선 방식을 확정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오는 10월 16일 치러지는 곡성 재선거 경선 방식과 관련해 “국민경선(안심번호 100%) 방식으로 곡성 4인 후보자에 대한 경선을 실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영광군수 재선거는 경선 후보자 3인을 대상으로 안심번호 선거인단 50%, 권리당원 50%로 치러진다.

민주당은 또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당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하고 당내 검찰수사 대응기구인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확대 재편한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문 전 정부에 대

한 검찰의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되는 것과 관련한 대책기구 논의가 있었다”며 “이미 검토위가 있고 내부에 팀이 구성돼 있지만 그걸 다시 확대 구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당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검찰이 문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보도내용에 대해 거짓말로 대응하는 것들이 있다”며 “그런 부분을 당 차원에서 적극 취합해 언론이나 국민들에

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 있었다”고 말했다.

딤페이커(불법합성물) 성범죄 대응을 위한 ‘딤페이커성범죄·디지털성폭력근절대책단’도 이날 구성했다.

6선 추미애 의원이 대책단 단장을 맡고 3선 이재정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는 등 여성 의원들이 전면에 섰다.

조 대변인은 “이 대표가 지시한 바와 같이 이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당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대책단 구성을 오늘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의 경남 김해 봉하마을·양

산 평산마을 예방 일정은 오는 8일 재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당초 지난달 22일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하려 했으나 당일 코로나19 확진으로 일정을 연기했다.

여야 대표 회담에서 합의가 불발된 채 해병 특검법과 관련해선 원내 지도부가 전략을 재정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변인은 “원내가 향후 (특검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논의해 결론을 내릴 것이고 이와 관련해 결론이 내려지는대로 원내서 설명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국가 첨단인재 양성의 산실

세계 무대에서 더욱 빛나는 전남대학교

수시 입학원서 접수 | 2024. 9. 9.(월) 09:00 ~ 9. 13.(금) 18:00

수시 합격자 발표 | 2024. 12. 13.(금) 15:00

※ 전남대 입학과 안내전화 062-530-4731~4735